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27 호

2020 년 5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안내 (5/28)
2. 제 5 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 개최 안내 (6/2)
3. 기업 재생에너지 얼라이언스(Corporate RE Alliance, CREA) 런칭
4. 2020 AVPN 온라인 컨퍼런스(Virtual Conference) 개최 안내 (6/8~12)
5.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안내 (6/15~16)
6.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영상 메시지 제출 안내

■ 본부 소식

1. 코로나 19 로 인한 해상 공급망 혼란, 세계적 물품공급 부족의 원인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먹을 수 있는 포장용기로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2. [코로나19 대응 기업 우수사례] LEGO, Johnson & Johnson, Tata Consultancy Services, Novo Nordisk AS
3. [SDG 미디어 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임팩트 투자와 SDGs
- 존 린 (John Lynn) Cela 공동 창업자 외 3명

■ UNGC 회원 뉴스

1. 충남연구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2. SK이노베이션, 코로나19 사태에 '언택트 방식 교육' 확대
3. 동서발전, 중소기업 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 극복 지원

■ CSR 뉴스

1. 금융업, ESG 고려해야 살아남는다
2. 국내 소셜벤처 1000 개 활동, 여성·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3. 국민 61% “친환경 성장전략 ‘그린뉴딜’ 경기 부양에 도움”
4. ‘소셜본드’ 발행 봇물…ESG 가 대세 되나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안내 (5/28)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한국협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자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반기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님께서
특별강연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이며,
<'코로나19' 우리 기업 대응 사례집> 발간 및 여성 임원 비율 향상을 위한
<Target Gender Equality> 세레모니가 진행됩니다.

회원사 대표, 임원 및 담당 실무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11:00 - 13:30
- 장 소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 (6F)
- 참가대상 회원 대표 및 실무진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대참자를 필히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2020 정기총회 일정

| 시 간 | 프로그램 |
|---------------|--|
| 10:30 - 11:00 | 등 록 |
| 11:00 - 11:30 | 본 회 의 I. 개회사 II. 2020 총회 의제 및 전기 회의록 채택 III. 이사 일부 변경 의결 IV. 2019 사업, 결산 보고 및 의결 V. 2020 사업 계획, 예산안, 중장기 계획 보고 및 의결 |
| 11:30 - 11:50 | 특별강연 -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
| 11:50 - 12:00 | 단체 사진 촬영 - <Target Gender Equality> 세레모니 - <'코로나19' 우리 기업 우수 사례집> 발간 |
| 12:00 - 13:30 | 오찬 |



반기문

現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보아오포럼 이사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석좌교수
前 제8대 유엔 사무총장

- * 참석자 제공 자료:
- 코로나19 우리 기업 대응 사례집
 - 영국투명성기구 발간 'Incentivising Ethics' 국문 번역본
 - 'SDG Action Manager' 및 '지속가능한 해양 원탁' 브로셔

* 등 록: 아래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경우,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히 위임장을 5월 22일 (금)까지 한국협회 사무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전 화 02 749 2149/50
팩 스 02 749 2148
문 의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신청

2020 정기총회 참가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2. 제 5 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 개최 안내 (6/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WWF Korea 와 CDP Korea 가 공동주최하는 “제 5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파리협정 이후의 신기후체제 아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후위기 대응 도전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1) EU Taxonomy 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유하고 (2) 환경부의 LEDS & NDC 관련 업데이트와 (3) SBTi 참여 및 IT 관련 사례에 대한 기업 발표를 통해 기업의 관심과 기후행동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기후행동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5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 The 5th Climate Action Round-Table

2020년 6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프로그램(안)

| 시간 | 내용 | 발표자 |
|---------------|---------------------------------------|----------------------|
| 13:40 - 14:00 | 등록 | |
| 14:00 - 14:10 | 개회사 | |
| 14:10 - 14:20 | Intro: 국내외 동향 업데이트 | |
| 14:20 - 14:40 | 발표 1: EU Taxonomy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 |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 14:40 - 15:00 | 패널토론 I | CDP, UNGC, WWF |
| 15:00 - 15:15 | 휴식 | |
| 15:15 - 15:35 | 발표 2: LEDS & NDC 관련 업데이트 | 환경부 |
| 15:35 - 15:55 | 발표 3: SBTi 참여 및 IT 관련 사례 | TBD |
| 15:55 - 16:20 | 패널토론 II | CDP, UNGC, WWF |
| 16:20 - 16:30 | Outro: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CREA 소개 | |
| 16:30 - 16:40 | 마무리 | |

[참가신청 바로가기](#)

3. 기업 재생에너지 얼라이언스(Corporate RE Alliance, CREA) 런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SC 제일은행본점 빌딩 15층

070-7463-4244
climate@wwfkorea.or.kr
wwfkorea.or.kr

Corporate RE Alliance 기업 재생에너지 얼라이언스

CREA 소개 | What is the Corporate RE Alliance?

기업 재생에너지 얼라이언스(Corporate Renewable Energy Alliance: CREA)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목표의 수행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CREA 파트너기구인 WWF 와 CDP, UNGC 가 공동으로 구축한 얼라이언스이다. 기업이 공개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선언하는 행위는 경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CREA 는 다양한 기업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REA 수립 목적 | What is the purpose of the CREA?

CREA 파트너기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과 협업해왔지만, 더욱더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을 증진하고 정부 정책 및 기업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CREA 는 기업이 모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허브로서 역할을 제공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100 이니셔티브

The Climate Group 과 CDP 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100%로 재생에너지로 소비하겠다는 의지를 기업이 선언하고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의 제시 및 실적 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 받는다. 2020년 5월 기준 구글, 나이키, 소니, 스타벅스, 쉘로그, 코카콜라를 비롯한 234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미 최종목표인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한 기업도 있다.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REBA)

재생에너지 구매를 희망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자와 공급자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매 연합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수요 및 구매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서로 협력한다. 주요 목적은 에너지 소비자인 기업이 재생 가능한 청정 전기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모색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더욱 경쟁력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을 구축하는데 있다. 2020년 5월 기준 REBA 에는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약 200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CREA 참여를 통한 기대효과 | Benefits of joining the CREA

CREA 는 얼라이언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목표가 있다. 참여 기업은 파트너기구가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기회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CREA 운영 프로그램 | What does the CREA offer?

CREA 에서는 가능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세미나, 워크숍, 이해관계자 미팅을 통한 기업의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다. 실무진 대상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고위직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공식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돕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을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구분 | 내용 | 일정 | 비고 |
|-----------------------------|--|---|--|
| CREA 런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WF “Climate Action Conference”와 연계하여 “CREA” 런칭 | 2020년 6월 24일 | |
|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기업의 실무진을 대상 분기별 스터디 그룹 운영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실무진 대상 가이드라인 발간 P4G Summit 의 세션 중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 주최 UNGC Korea “Leaders Summit”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세션 진행 | 6, 9, 12월 중 12월 2021년 중 11월 | 개인 자격으로도 참여 가능 스터디그룹 내용을 기반으로 발간 COVID-19로 연기 경영진 참여 세션 조성 가능 |
| 재생에너지 조달 향상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조달 원칙 발간 참여 기업, 정책입안자, 정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비)공식 미팅 주최 참여 기업을 포함 30개 이상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시행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 관련 국회와 연계하여 포럼 개최 | 하반기 중 정책 도입 시기 전후 | |
|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설정 지원을 위한 개별 미팅 진행 | 수시 | |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 | 기타 사항 문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

자세히 알아보기

4. 2020 AVPN 온라인 컨퍼런스(Virtual Conference) 개최 안내 (6/8~12)



AVPN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Social Purpose Organization(SPO)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지분투자, 역량강화, 지식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기관들(Funder)의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AVPN은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2개국 600여 개 재단, 대기업, 정부기관, 임팩트 투자자 등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VPN은 회원사들이 사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회원들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원기관(Funder)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Fundee)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 사회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회원사들을 위한 교육 Webinar 제공, 연구보고서 출간, 정책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 AVPN Virtual Conference 개최 안내

AVPN에서는 회원사 및 파트너사를 한 자리에 초청하여 싱가포르에서 매년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8~12일 (총 5일) 간 Virtual Conference로 진행됩니다. 이번 Conference는 △협력, △젠더, △기후변화대응, △자선사업, △임팩트 투자 등 총 5개의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CEO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자들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마련되어 있으니 네트워킹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UNGC 회원사는 컨퍼런스 참여 티켓 구매 시 'Outreach Partner'를 선택하면 50%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컨퍼런스 참가신청

5.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안내 (6/15~16)

2020년 6월 15일, UNGC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전 세계 수 천명의 리더들이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에 참석합니다. 기업, 정부, 유엔 및 국제사회, 시민단체, 아카데미아 등이 참여하는 이번 온라인 리더스 서밋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함께 재건해나가야 할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모두가 초청된 이번 리더스 서밋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로부터 배우고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리더스 서밋 참가신청

리더스 서밋 행사 관련 문의 사항은 UNGC 한국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 6월 15일 | | | |
|-------------|---|--------------------------|------------------------|
| 08:00~09:00 | 개회식 | | |
| | 환영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업 연대 Lise Kingo, António Guterres, Tijjani Muhammad-Bande, Mark Carney | | |
| 09:00~09:15 | 고위급 세션: 빠른 회복을 위한 SDG 포부(Ambition) | | |
| | UNGC 및 지속가능기업의 지난 20년간 성장 Remi Erikson | | |
| 09:15~10:00 | 패널 토의: 변화와 복구를 위한 로드맵에 대한 고찰 Femi Oke, Suphachai Chearavanont | | |
| 10:00~10:30 | SDG 포부: 복구 및 조치를 위한 비즈니스 영향 확대 Julie Sweet, Lise Kingo | | |
| 10:30~11:30 | SDG 포부: Better & Stronger Recovery (1부) Peter Lacy, Roberto Marques | | |
| 11:30~12:00 | 코로나 이후의 SDG 리더십 Lise Kingo, Clarke Murphy, Jim Hagemann Snabe | | |
| 12:00~12:30 | 위기 속 리더십: Recover Better, Recover Stronger, Recover Together Tedros Adhanom Ghebreyesus, Al Gore | | |
| 12:30~13:00 | 원격 네트워킹 | | |
| 13:00~14:00 | 심화 세션 1부 | | |
| | SDG 포부 | DNV-GL 'UNGC 20년 성과' 보고서 | 지속가능한 리더십 |
| | 수자원 회복탄력성 | 지속가능한 금융 | |
| 14:00~15:00 | 심화 세션 2부 | | |
| | 해양 행동 | 청년 SDG 혁신가 | Target Gender Equality |
| 15:00~16:00 | 글로벌 타운 홀(Town Hall) | | |

| | | | |
|-------------|--|---|--------------|
| | UNGC 라틴 아메리카 네트워크 | | |
| 16:00~18:00 | 글로벌 타운 홀 | | |
| | UNGC 브라질 협회 | UNGC 멕시코 협회 | |
| 18:00~20:00 | UNGC 호주 협회 타운 홀 | | |
| | 패널 토론: 위기 속 기후행동 | 뇌물 방지와 SDGs 파트너십 구축 | |
| 20:00~22:00 | UNGC 중국 협회 타운 홀 | |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 패널: 디지털 시대 속 의료 기술 인프라와 지속가능한 미래 | UNGC 'SDGs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대일로" 인프라' 액션 플랫폼 공개 | |
| 22:00~23:00 | 글로벌 타운 홀 | | |
| | UNGC 동남아 네트워크 | | |
| 23:00 | 글로벌 타운 홀 (23:00~01:00) | | |
| | UNGC 태국 협회 | UNGC 인도네시아 협회 | UNGC 싱가포르 협회 |
| 23:00~23:59 | 글로벌 타운 홀 | | |
| | UNGC 인도 협회 | | |
| 6월 16일 | | | |
| 00:00~01:00 | 글로벌 타운 홀 | | |
| | UNGC 스리랑카 협회 | | |
| 01:00~02:00 | UNGC 중동 네트워크 | | |
| 02:00~03:00 | UNGC 동유럽 네트워크 | | |
| 03:00~04:00 | 고위급 세션 (09:00~12:00 CET) | | |
| | UNGC 10대 원칙과 코로나 이후의 회복 (09:00~10:00 CET) Guy Ryder | | |
| 04:00~05:00 | 기후 앰비션: 코로나 이후의 1.5 °C 목표 이행 (10:00~11:00 CET) | | |
| 05:00~06:00 | SDG 포부: Better & Stronger Recovery (2부) (11:00~12:00 CET) Peter Lacy, Sunny Verghese, Alan Jope | | |
| 06:00~08:00 | 글로벌 타운 홀 | | |
| | UNGC 프랑스, 아프리카 지역 협회 | UNGC 영국 협회 | 해양 행동 |
| | 지속가능한 리더십 | UNGC 독일, 스페인 협회 | UNGC 터키 협회 |
| | UNGC 불가리아 협회 | | |
| 06:00~08:00 | 글로벌 타운 홀 | | |
| | UNGC 스위스, 이탈리아 협회 | | |
| 07:00~08:00 | 글로벌 타운 홀 | | |
| | UNGC 네덜란드 협회 | UNGC 아프리카 네트워크 | UNGC 포르투갈 협회 |
| | UNGC 스페인 협회 | SDG 포부 | |
| 08:00~09:00 | 글로벌 타운 홀 | | |

| | UNGC 나이지리아 협회 | UNGC 유럽 네트워크 | 청년 SDG 혁신가 |
|-------------|---|--------------|------------|
| 09:00~09:10 | 폐회식 글로벌 변화를 위한 로컬 행동 Amina Mohammed | | |
| 09:15~10:00 | 이임식: '행동의 10년'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Lise Kingo | | |
| 10:00~11:00 | 폐회식 리셉션 | | |

연사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



Tijjani Muhammad-Bande,
UN 총회 의장



Lise Kingo,
UNGC 사무총장



Alan Jope,
Unilever CEO



Julie Sweet,
Accenture CEO



Jim Hagemann Snabe,
A. P. Moller Maersk 회장,
Siemens AG 이사회 의장,
Allianz SE 이사회 부의장

6.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영상 메시지 제출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회원사 CEO 들이 자사의 코로나 19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영상 메시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해 회원사라면 누구나 68 개의 로컬 네트워크와 10,000 여개의 기업들에게 우리 기업의 아이디어, 조언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웹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 게재되며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영상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로, 기업당 최대 3개의 영상(주제당 1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대응(Response):** 코로나19는 귀사의 인력, 지역사회 및 기업 활동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5월 15일 기준, 총 49개 기업 참여)
- 2) **회복(Recovery):** 귀사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연속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월 15일 기준, 총 22개 기업 참여)
- 3) **복원(Resilience):** 복원력(Resilience)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5월 15일 기준, 총 13개 기업 참여)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UNGC 한국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EO 영상 메시지 예시



제니퍼 스캔론(Jennifer Scanlon) 유엘(UL) CEO

- 직장 내 PPE(개인용 보호구) 및 위생 프로세스를 강화해 직원 보호
- 호흡기 및 중환자실용 의료기기 공급 개선
- 소독장비 및 건강관리시설 등에 사용되는 UBC 살균장치 인증
- [영상 바로가기](#)



패트릭 푸안(Patrick Pouyanné) 토탈(Total) CEO

-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자사의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
- 40 개 언어로 24 시간 운영되는 코로나 19 핫라인 개설
- 대다수의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제공
- [영상 바로가기](#)



장 파스칼 트리쿠아(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CEO

- 보건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을 전개 중인 모든 국가 및 지역사회의 당국과 긴밀히 협력
- 데이터, 교통 네트워크, 스마트 시티, 데이터 전송 등 필수적인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영상 바로가기](#)



마나베 스나오(Sunao Manabe)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 CEO

- 제약회사로서 약품의 안정적 공급 확립
-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긴급 대응 팀을 구성해 확산 방지에 대처
-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 시하는 업무 방식 추구
- 코로나 19 를 위한 백신 및 약품 연구개발
- [영상 바로가기](#)

CEO 영상 메시지 제출하기

CEO 영상 메시지 보기

본부 소식

1. 코로나 19로 인한 해상 공급망 혼란, 세계적 물품공급 부족의 원인



해상 공급망 유지를 위한 국가 정부 간 협업이 요구된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 정부들이 전세계 해상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업하지 않을 경우 해상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보급품들의 공급 지연 및 혼란이 곧 세계적 물품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세계 무역의 90%는 대형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매월 계약이 만료되는 10만 명의 선원 교체 등 안정되고 지속적인 해상 업무를 위한 주요 인원들의 업무 순환인데, 여행 제한과 항공기 운항 금지로 인해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해상 공급망 또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해양 기반 작업들이 필수적이며 양식과 어획 어업은 식품 및 동물 사료의 주된 공급원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5월 5일 전세계 해상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치적 조치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권고안은 다국적 대기업, 해양 관련 협회, 금융기관, 유엔 특수 기관, 그리고 학술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for Sustainable Ocean Business\)](#) 내 코로나 19 태스크포스팀의 업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역학 자료와 리스크 평가에 의하면 코로나 19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국경, 여행 제한, 그리고 격리 등 여러 제한적 조치들은 전세계 인구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식품, 연료, 의학 용품, 그리고 자원의 국가 간 유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정치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시일 내에 중대한 규모의 지연 및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털라 헨릭슨(Sturla Henriksen) 유엔글로벌콤팩트 해양 특별고문은 “현 문제 상황의 규모, 복잡성, 그리고 긴급성은 전 세계적 수준의 체계적이고 조율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결단력 있는 정치적 대응의 부재는 곧 국가 경제와 필수적 물품의 국경 간 유통을 저해하는 파급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가이 플라텐 (Guy Platten) 국제해운회의소 사무총장은 “15 만명의 해양 종사자들이 바다 위에 갇혀있는 지금,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리는 국가 정부들과 유엔 시스템에 확실한 권고들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기업과 시민사회들이 선두로 나서고 있으며 주어진 과제에 책임을 지고 적절한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이제는 정부 기관들이 120 만명의 해양 종사자들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계가 필요로 하는 필수물품들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고된 14 개의 조치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속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양 공급망의 유지 보장을 위한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접근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발적 정부 연대를 통한 해양 공급망 대책 본부 수립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핵심 노동자(Key worker)” 자격 제도를 도입해, 해양 공급망의 안전성과 온전성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허가
- 선박 및 인력 인증 및 분류에 대해 해양관할구역 전체에 걸쳐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면제조치 부여
- 해상 공급망 실제 및 잠재적인 혼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지표 수립

코로나 19 상황 속 해양 공급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권고안

I.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활발한 국제 해양 공급망의 중요한 역할 인지

1. 문제 대응에 자발적인 정부들의 연대를 성사시켜 글로벌 공급망의 해양 물품 공급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국경 간 유통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II. 글로벌 해양 공급망의 안전성과 온전성을 위해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세계 협력 및 협조 추구

2. 정부기관 대표자, 산업 협회 및 UN 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진 해양 공급망 태스크 포스를 통해 주요 인력 및 물품의 국경 간 해양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

III. 글로벌 해양 공급망의 온전성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경 간 물품 유통 보장

3. 해상 물품 공급의 지속적 유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출입을 위한 국경을 열어놓는다.
4. 세관 및 항만 당국 간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추구한다.

IV. 해양 공급망의 온전성을 위해 국적과 상관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핵심 노동자 (key worker)” 자격 제도 도입

5. 각국 정부가 인정하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필수 서비스 항목을 수립하고 이에 해양 관련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6.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핵심 노동자(key worker)” 자격 제도를 수립하여 이들이 국경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으며 유사 시 해외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V. 핵심 노동자 및 필수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유통을 위한 조치들을 취함

7. 검증된 항만 작업 방식 및 조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해상 물품 유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8.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정해진 안전의정서에 기초하여 핵심 노동자의 이동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는 항만이나 공항을 특정함으로써 핵심 노동자의 이동을 촉진한다.
9. 특정된 모범사례 모방 및 강력한 육해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통해 항만 및 국경 간 유통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10. 해상 선박 및 해양 시설 내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할 코로나 19 프로토콜을 수립한다.
11. 정부는 해상 핵심 노동자들을 위한 필수 의료 용품 및 연료 외 필수품들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VI. 글로벌 해양 공급망의 안전성 및 온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및 분류 절차에 있어 증거에 기초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접근방식 채택

12. 해상 시설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재산, 인권, 환경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 노동자 자격의 발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13. 한편, 항만 국가 통제 당국, 깃발 관리 당국, 기타 해양 국가는 선박 및 인원의 증명·분류에 관한 해사 관할 구역의 면제 조치에 대해 일관성, 통일성,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추구한다.

VII. 글로벌 해상 공급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릭스 시스템 구축

14. 해상 공급망에 현존하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지하기 위한 지표시스템을 구축한다.

권고안 전문 보기

태스크포스팀 내 여러 단체 및 기업의 본 권고안에 대한 지지 메시지

“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IMO)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권고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헤이케 데깅(Heike Deggim) IMO 해양안전 부서 디렉터

“우리는 국가 정부들과 유엔 시스템에 확실한 권고들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의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가이 플라텐(Guy Platten) 국제해운회의소(ICS) 사무총장

“국제적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패트릭 베르호벤(Patrick Verhoeven) 국제항만협회(IAPH) 정책전략 부서 매니징 디렉터

“이 훌륭한 보고서와 권고안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니셔티브는 현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식품 및 농업 부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르니 M. 마테센(Arni M. Mathiesen) 식량농업기구(FAO) DDN 특별고문

“IOGP는 현 시국에 전세계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공급하기 위해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UN이 글로벌 리더십을 선보이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올라브 스카르(Olav Skar) 국제 석유 및 가스 생산자 협회(IOGP) 안정성 디렉터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롤프 토르 로페스타드(Rolf Thore Roppestad) 가드 AS(Gard AS) 최고경영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다양한 분야의 선도적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매우 통찰력 있는 보고서와 관련 권고안을 발간했으며, 저는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토마스 피코크(Thomas Peacock) MIT 교수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액션 플랫폼에 대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행동 플랫폼은 기업, 학계,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해양 기업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출범했습니다. 본 행동 플랫폼은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를 다루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먹을 수 있는 포장용기로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두-이트(Do Eat)는 간식, 애피타이저, 그리고 샌드위치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용 식품 용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이트가 개발한 용기는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으며 식용 잉크 펠트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두-이트 (Do Eat)는 물과 감자 전분을 재료로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식용 포장 용기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그 어떤 케이터링 행사나 식당에서 샌드위치와 같이 본래 종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서빙하던 음식을 짜든, 달든, 뜨겁든, 차갑든 종류와 상관없이 내놓을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애피타이저 용기는 세 가지 종류로 각각 툴립, 연꽃, 보트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온라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간식 용기는 Do Eat-yourself 키트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스펀지와 약간의

물을 이용하여 용기의 모양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며 식용 잉크 펠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왜 두-이트 (Do Eat)의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케이터링 및 식품 분야에서 일회용품은 사용은 빈번합니다. 플라스틱, 종이, 그리고 최근에는 목재와 같은 재료들이 식당 포장용기나 음식 패키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제품들은 보통 쓰레기통이나 자연 속에 버려지게 됩니다. 식용 용기들은 이러한 일회용 폐기물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제품 포장 및 폐기에 대한 관념을 아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두-이트(Do Eat)는 30 만 개 이상의 식용 용기가 판매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일회용 용기들의 폐기물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코로나 19 대응 기업 우수사례] LEGO, Johnson & Johnson, Tata Consultancy Services, Novo Nordisk AS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이 전 세계인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비즈니스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포럼(WEF)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시장과 공급망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 사례를 모았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적인 이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수 주간 코로나 대응 기업 사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협회는 팬데믹에 맞서 기민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한 우리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취합, 발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로 이겨낸 사례를 담은 본 사례집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기업들의 노력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코로나 19 대응 사례 공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처(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LEGO

- 국가: 덴마크
- UNGC 가입: 2003년 7월 15일
- 산업군: 완구제조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LEGO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혹은 난민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부터, 도시 지역에서 격리 상황에 놓여진 아이들까지, 코로나 19 위기 속 전 세계 곳곳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내놓았습니다.



LEGO 재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의 여러 가족들을 연결하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한 배움에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무료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곳곳의 가족들과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놀이 방법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는 격리 조치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의 아이들이 LEGO 디자이너들과 함께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새로운 흥미 찾기 등 삶에 있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각 구조들을 잘 길러나갈 수 있도록 보조하며, 전례 없는 격리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돌봄 노동에 지친 부모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LEGO 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5,000만 달러 상당을 기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필수 물자를 지원하여 응급 상황 속에 놓인 아이들을 돕고,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UNESCO 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교육 기관들을 폐쇄한 상태로, 이는 전 세계 학령기 인구의 약 80% 이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 Johnson & Johnson

- 국가: 미국
- UNGC 가입: 2013년 7월 19일
- 산업군: 제약 & 생명공학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Johnson & Johnson은 지난 3월 30일, 전 세계적으로 10억 개의 비상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자사의 생산 라인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2021년 초 즈음까지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비상용 코로나 19 백신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올해 50주년을 맞은 [2020 다보스 포럼](#)에서 향후 10년간 의료 종사자들에게 2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던 Johnson & Johnson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5,0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현 코로나 19 대유행 사태 속에 세계 곳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지역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對)의료진 지원은 Johnson & Johnson사의 오랜 전통으로, 이미 1900년대 초반 스페인 독감 확산 당시 방역 마스크 개발 등을 통해 의료진을 도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3. Tata Consultancy Services

- 국가: 인도
- UNGC 가입: 2006년 10월 23일
- 산업군: 소프트웨어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Tata Consultancy Services](#) 는 자사의 원격 교육 소프트웨어를 교육 기관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해당 원격 웹 플랫폼을 통해 강사들은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비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교안들을 나누며, 과제 수행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의 과정을 실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과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Tata Consultancy Services 의 지주회사인 Tata Group 또한 2 억 달러 상당의 금액을 기부하고, 세계 곳곳의 자회사들을 통해 각국 정부를 도와 피해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Tata Group 의 기부금은 방호복, 호흡기, 검사 키트, 치료 시설, 그리고 의료인력 육성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코로나 19 대응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4. Novo Nordisk AS

- 국가: 덴마크
- UNGC 가입: 2002년 3월 18일
- 산업군: 제약 & 생명공학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Novo Nordisk 재단은 덴마크 내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연구사업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마련 등을 위해 약 [5,000 만 크로네 상당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의 접근이 쉽고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수 있는 국가 선정 사업을 택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코로나 19 상황에 맞춘 혁신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빠른 진행 과정 속 습득되는 지식 및 노하우는 향후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Novo Nordisk 재단은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기술 연구사업 △대중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기 관련 홍보사업 △코로나 19 여파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돕는 지원사업 등 총 세 가지 영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캠페인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코로나 19 환자들의 실시간 위험도를 측정하는 툴 등 [몇몇 사업들이 이미 선정](#)되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단의 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의 방향성은 Novo Nordisk 가 지난 3 월 “미래 전염병 확산에 덴마크가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개발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와 일치합니다.

3. [SDG 미디어 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임팩트 투자와 SDGs

- 존 린 (John Lynn) Cela 공동 창업자 외 3 명



<우측부터 존 린 (John Lynn) Cela 공동 창업자, 앤 로젠버그 (Ann Rosenberg) SAP Next-Gen 과 SAP University Alliance 글로벌 책임자 겸 유엔 파트너십 담당 선임 부사장, 그리고 시셀 한센(Sissel Hansen) The Startup Guide 창립자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및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 즉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앤 로젠버그(Ann Rosenberg) SAP Next-Gen, SAP University Alliance의 글로벌 책임자 겸 SAP 유엔 파트너십 담당 선임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 for UN Partnerships at SAP & Global Head of SAP Next-Gen and SAP University Alliances, SAP Next Gen), 존 린(John Lynn) Cela 공동 창업자(Co-Founder, Cela) 및 시셀 한센(Sissel Hansen) The Startup Guide 창립자(Founder, The Startup Guide)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세 사람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활용하고 있는 스타트업 급증의 현 상황,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및 기업의 참여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임팩트 투자의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반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The Startup Guide 창립자 한센은 “우리는 기업가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창업 현장을 탐색하고 연결하며 생태계나 기술 관련된 지역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다. 기업가,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등을 고려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다시 정의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SAP의 로젠버그는 “기업의 혁신 전략과 스타트업,

학계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ela 의 린은 “다양한 단체들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일을 한다.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며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업 내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식의 현황은 어떠한가?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린은 “현재 기업 내에서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평가, 돈, 빠른 성장만을 중요시하던 기업들이 가치 제안을 더 잘 파악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인식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센은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훌륭한 프레임워크이며 이를 기업이 쉽게 측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적 영향과 핵심 목표를 제고한다면 기업이 이를 이루기 위해 뒤따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젠버그는 “모든 스타트업, 기업, 민간부문에 대해 관리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가치, 운용 측면의 가치, 가치사슬의 규정법 등을 어떻게 측정할지 고려해야 한다. 기업 운영에 있어 성공만을 거두는 모델을 구축 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고려하는 순서가 아닌 첫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린은 “현재 뉴욕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극적으로 내재하는 목적 주도형 스타트업을 구축하는 기세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기술 회사들이 활발한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관련 사업도 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으며 지능적으로 행동할 때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센은 “기업, 학계, 시민 사회, 정부가 협력하고 서로 영감을 줄 수 있는 열린 파트너십의 원천을 구축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일을 해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로젠버그는 “정부와 민간부문에 걸쳐 17 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틀이 잡힌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목표 달성에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세계 최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은 “액셀러레이터는 이해관계자와 중요한 파트너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꼭 필요한 플랫폼이다. 접근성을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과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명의 참여자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층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계속해서 탐구하며 유엔과 협력하여 혁신가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토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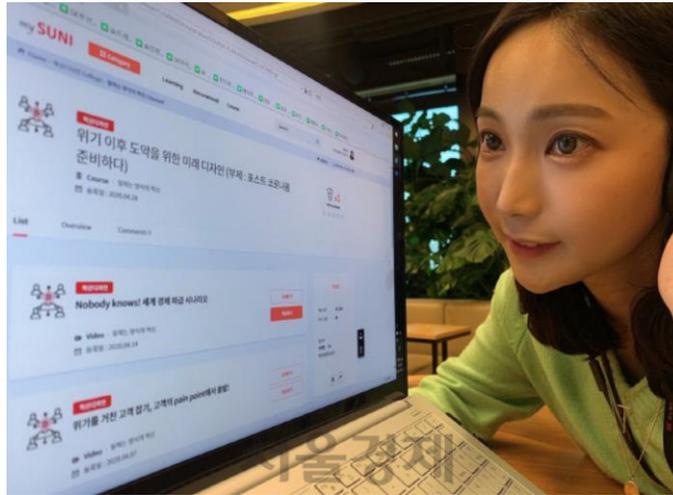
1. 충남연구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 충남연구원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여 5월 7일 연구원에서 UNGC 가입증서 전달식을 가졌음
- 충남연구원은 지난 해 7월 전국 연구기관 중 최초로 인권경영센터를 개소하고 그 외 정책을 통해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 방침을 내세웠음
- 윤황 원장은 “이번 UNGC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겠으며, UNGC가 내세우는 4대 분야 및 SDGs 등의 국내외 인적교류를 갖고 충청남도 싱크탱크로서 충남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충청뉴스

2. SK 이노베이션, 코로나 19 사태에 '언택트 방식 교육' 확대



-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월 출범한 SK그룹 구성원 대상 사내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를 통해 SK 이노베이션 직원들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의 주제로 다양한 강의를 학습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관련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그 외 신입사원, 공장 채용 인력, 계열사 팀장 등의 직원군 대상 교육도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 김상호 SK 이노베이션 인재개발실장은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언택트 교육’을 통해 구성원 역량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힘

서울경제

3. 동서발전, 중소기업 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 극복 지원



- 한국동서발전은 코로나 19 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일·학습병행 근로자 장학금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힘
- 당사는 에너지 연관 중소기업 16 개사를 선정해 1 년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습근로자들에게 1 인당 200 만원의 장학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총 4000 만원의 장학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
- 그에 더해 지난 4 월 3 일 1 차적으로 11 명에게 총 2200 만원, 5 월 6 일에는 2 차로 9 명에게 총 1800 만원의 장학금을 조기 지급
-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 됨

부산일보

CSR 뉴스

1. 금융업, ESG 고려해야 살아남는다"



- 글로벌 로펌 레이턴앤왓킨스, 금융업계가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 이는 환경과 사회적 평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ESG 문제가 수반되는 투자 위험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음
- ESG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UN 산하 책임투자원칙기구(UN PRI)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와 같은 관련 기구나 협약도 다수 생겼음
- 이 외 은행업계의 UN 책임은행원칙(UN PRB), 지속가능은행네트워크(SBN)이나 증권업계의 지속가능경영거래소 이니셔티브(SSE Initiative)와 같이 업계별 ESG 관련 기구들이 생겨났음
- 데이빗 버만 레이턴앤왓킨스 파트너 변호사는 “각국 정책입안자와 규제당국은 민간금융(private finance)에 지속가능성을 불어넣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녹색금융으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물리적·과도기적 리스크를 발견·평가·관리하고 이를 기존의 리스크 관리체계에 통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

아주경제

2. 국내 소셜벤처 1000 개 활동, 여성·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 현재 국내에는 기술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인 “소셜벤처”가 998 개 존재함
- 소셜벤처들은 일반 기업보다 여성 고용률이 높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고 있음
- 소셜벤처의 여성 고용률은 49.4%로 일반 기업 41.7%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8%를 차지해 여성 및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고 있음
- 이 기업들은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인 한편, 자금조달의 어려움, 중간 지원 조직 확대, 국내외 판로 개척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함
- 그러나 정부의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이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조선비즈

3. 국민 61% "친환경 성장 전략 '그린뉴딜' 경기 부양에 도움"



-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 명 중 6 명은 코로나 19 로 인한 경기 침체가 '그린뉴딜'을 통해 부양될 것이라고 답변함
- 또한 응답자 60%는 국회가 그린뉴딜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음
- 응답자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생각했고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저탄소 건물, 에너지 효율 산업' 등이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되야 할 산업으로 꼽혔음
- 그린피스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그린뉴딜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민심을 반영해 서둘러 '한국형 그린뉴딜'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을 실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4. '소셜본드' 발행 붐물...ESG 가 대세 되나

올해 주요 은행 소셜본드 발행 현황

| 은행 | 규모 | 주요 사용목적 |
|------|-------------|-----------------------------------|
| 산업은행 | 1조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고용불안 해소 |
| 국민은행 | 4천억원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
| 신한은행 | 외화 5천만달러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확산 방지 활동 지원 |

- 올해 주요 은행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채권의 한 유형인 소셜본드를 잇따라 발행해 새로운 채권 발행 트렌드로 주목 받고 있음.
- 소셜본드 발행을 통해 환경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어 외국에서는 관련 시장이 발달해 있으며 올해 코로나 19 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소셜본드 발행이 활발해지고 있음
- 산업은행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 조원 규모의 소셜본드를 발행 완료하였으며, 국민은행은 코로나 19 금융지원 목적으로 4 천억원 규모의 소셜본드를 발행했음
- 한국신용평가는 ESG 채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중요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ESG 채권 발행 기준과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발행자에 대한 세금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한겨레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곳입니다.

- 길바이오

1. COP/COE 제출회원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KEB 하나은행, LG 화학, 두산중공업, 한국타이어,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LS 산전, 휴맥스, 한국동서발전, 한전 KPS, 서울주택도시공사, 롯데홈쇼핑,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화솔루션, CJ 대한통운, KDB 산업은행, 포스코,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거래소, 한전산업개발, NS 쇼핑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유니베라,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협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포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근로복지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